

# 여성대상관계에서의 에릭슨 발달이론 평가

박 영 희 (이화여대 강사)

## 1. 문제 제기

본 논문은 기존의 인간 발달 이론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기존의 발달 이론에 오래 전에 Freud가 '외디프스기 이전까지의 여아는 남아와 동일한 존재이다'라고 주장하던 시대처럼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발달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주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의 발달은 남성에 못미친다는 Freud의 전제 역시 원래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발달이론들은 발달이 계속적인 분리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의 형성, 개인적 독립의 단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전제해 왔다. 따라서 이들 이론은 분리된 자아, 자율적 존재를 강조해왔으며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일의 세계를 중심으로 한 남성성을 나타내기에 적당한 개념이다.

그러나 Freud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시각이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본능적 욕동 (instinctual drive)을 일차적으로 보고, 관계는 본능적 욕동 다음의 부차적인 것으로 보았던 데에 반하여 "관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Sullivan에 의하여 시작된 이러한 움직임은 Klein<sup>2)</sup>을 중심으로 한 대상관계 이론가(object relation theorist)들에 의하여 본격화 되었다. "관계"란 '애착', '상호의존성', '보살핌'과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 특히 사람들과의 유대를 중심으로 삶이 주로 이루어지는 여성성을 나타내기에 적당한 개념이다.

기존의 이론들이 분리 위주의 남성의 발달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을 뿐 관계성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의 발달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은 1970년대의 미국의 발달 심리학계<sup>3)</sup>였다. 그들은 기존의 발달 이론들이 '남성에 의한 남성성에 대한'<sup>4)</sup> 연구였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모두 남자

1) Carol Gilligan(1977). In a Different Voice: Women's Conceptions of Self and of Moral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Vol. 47, No. 4, November, pp.481-517. ; Jean Baker Miller(1991). The Development of Women's Sense of Self, In *Women's Growth in Connection*, eds. by Judith V. Jordan, Alexandra G. Kaplan, Jean Baker Miller, Irene P. Stiver, Janet L. Surrey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pp. 11-26.

2) Howard A. Bacal and Kenneth M. Newman(1990). *Theories of Object Relations : Bridges to Self Psychology*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p.

3) Carol Gilligan(1977). New Maps of Development : New Visions of Maturit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p. 137.

4) Janet Zollinger Giele(1982). Women in the Middle Years, In *Women in the Middle Years*, ed. by Janet Zollinger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p. 2.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면서 여아가 남아에 비하여 발달 단계 상 낮은 단계에 처하여 있다는 결론을 유도해 낸 Kohlberg의 도덕 발달 단계 연구<sup>5)</sup>나 Piaget의 인지 발달 단계에 관한 연구<sup>6)</sup>가 그들의 대표적인 표적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같은 남성 위주의 시각은 남자 아동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외디프스 콤플렉스 개념에 기반한 성심리학적 발달이론을 전개한 Freud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계승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발달 이론을 여성에게 적용할 경우, 여성 클라이언트를 남성의 발달 관점에서 보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독립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여성의 관계성은 의존성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기존 사회의 가치를 교육받은 전문가들은 클라이언트에게 독립적 태도를 권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때,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 온 여성 클라이언트로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문가의 그와 같은 태도는 여성 클라이언트의 실제 경험과 삶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결국 여성의 자기부정, 낮은 자긍심이라는 기존의 부정적 여성 특성을 반복, 강화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 때 물론 효과적 개입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사회사업 클라이언트의 대부분은 여성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남성 중심의 관점에 의하여 생기는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하여 볼 때, 여성의 발달을 남성의 발달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보는 기존의 발달 이론은 여성심리가 빠진 모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여성의 발달 과정과 삶이 반영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모델은 여성들의 삶을 이해, 기술하여 남성과 여성의 발달을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계들을 제공함으로써 여성과 일하는 임상가, 교육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발달 과정을 동일한 기준에서 설명하고 있는 Erikson 발달 이론을 여성의 대상 관계의 특성인 관계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여성의 발달 과정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관계론적 보완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이론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것은 첫째, Erikson의 발달 이론은 Freud의 발달 단계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Freud의 남성 중심적 관점을 따르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미 부분적으로 Erikson의 발달 이론의 남성 중심적 특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Erikson 발달 이론은 심리사회적 시각에서 인간의 발달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사회적 측면의 개입이라는 사회사업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 생애에 걸친 유일한 발달 단계 이론인 Erikson 발달 이론을 발달 단계 별 특성과 단계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전체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인간 발달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관계 중심의 여성의 발달에 대한 전 생애적 관점에서의 조망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5) Kohlberg, L. & Kramer, R.(1969).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Childhood and Adult Moral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2, pp. 93-120.

6) Piaget, J.(1965).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ew York : The Press).

## II. 이론적 고찰

### 1. 여성 대상 관계와 정체감

대상 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한 관계론적 시각에 의하면 전외디프스기(preoedipal period)의 남아와 여아의 대상과의 초기 경험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체감 즉 남아는 “분리(separation)”, 여아는 “관계(relation)”를 중심으로 정체감이 각각 형성된다.

Gilligan은 “관계 특히 의존성의 문제를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르게 경험하게 된다. 남아와 남성의 경우, 어머니로부터의 분리가 남성성의 발달에 근본적이기 때문에 남성의 성정체감은 분리, 개별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반면 여아와 여성의 경우, 여성다움과 여성의 성정체감은 어머니로부터의 분리의 성취나 개별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애착을 통하여 형성되는 한편, 남성다움은 분리를 통하여 규정되기 때문에 남성의 성정체감은 친밀감에 의하여 위협을 느끼며 여성의 성정체감은 분리에 의하여 위협을 느낀다. 따라서 남성은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고 여성은 개별화되는 데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sup>7)</sup>고 함으로써 여성의 정체감은 남성과는 달리, 애착, 관계를 통하여 형성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자아, 도덕성의 개념과 관점에서도 남성과는 차이를 보인다.<sup>8)</sup> 이와같은 Gilligan의 발견은 지금까지처럼 남성적 기준으로 여성의 발달을 평가하는 대신 여성과 남성의 발달은 관계와 분리의 연속선 상에서 단지 서로 “다른”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서,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여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기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Gilligan의 주장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사람은 Chodorow이다. Chodorow는 “아주 일찍부터 여성은 자신과 같은 성의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기 때문에 . . . 여아들은 자신들을 남아에 비해 덜 분화된 존재로 경험하고 외적 대상세계(external object world)와 보다 연결되어있고 더 관련되어있으며, 내적 대상세계(internal object world)에 대한 지향도 다르게 경험한다”<sup>9)</sup>고 함으로써 남녀의 정체감의 차이는 초기 대상관계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남아와 여아의 대상관계(object relationship) 경험의 차이에서 형성된 분리와 관계 특성은 사춘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까지 이어진다<sup>10)</sup>고 주장하였다.

Gilligan도 남아와 여아의 분리와 관계 특성은 청소년기, 성인기로 이어져 평생동안 지속된다는 Chodorow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청년기에는 정체감 형성과 친밀한 인간관계의 형성으로 나타나고, 성인기에는 독립적인 직업생활과 성숙한 애정 관계로 재등장”<sup>11)</sup>하게 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청년기에는 “성적 정체감을 형성함에 있어서,

7) Carol Gilligan(1982), In a different Voice(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p. 8.

8) Carol Gilligan(1982). pp. 64-105.

9) Ibid., p. 167.

10) Nancy Chodorow(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os angeles), pp. 92-111.

11) Ibid., p. 151.

남성과 여성은 매우 다르게 독립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삶의 진리들을 강조... (여성의) 정체감은 관계의 맥락에서 정의되고, 책임과 보살핌의 기준에 의해 판단되며..."<sup>12)</sup>라고 하였다. 또 Josselson은 성인기의 여성에 대해서 "성공한 많은 전문직 여성들과 임상 작업 결과, 그들 여성들은 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정서적 에너지와 갈등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으로 남성과의 관계로 향하여져 있었다"<sup>13)</sup>고 함으로써 성인 여성 역시 경험이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여성의 "관계" 특성이 평생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의 발달은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발달 과정 상의 특성인 '관계'를 고려할 때에만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Jordan, Stiver, Surrey 등은 여성의 자아인식<sup>14)</sup>, 감정이입<sup>15)</sup>, 상호성<sup>16)</sup> 등에 대한 연구들을 통하여 여성의 발달에 있어서의 관계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관계 측면에서 더 발달되어 있다는 점도 입증하였다.

## 2. 발달 이론의 두 가지 시각 비교

기존의 발달에 대한 시각과 관계론적 시각은 몇가지 점에서 비교가 가능하다. 먼저 원초적 자아(archaic ego)의 측면에서 보면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여 원초적 자아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이 수정되고 있으며, 특히 원초적 자아의 반응능력에 있어서 여아가 더 우수하다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리론적 시각보다 관계론적 시각이 여아의 특성을 잘 나타내줄 수 있다. 둘째, 대상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는 대상관계 이론을 전후로 한 이론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 기존 시각에서 대상은 영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강하였다. 물론 대상 관계 이론들도 기본적으로 정신분석적 입장을 따르는 것이기는 하나, 대상과의 관계 자체에 대한 욕구를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관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의 정체감을 나타내기에 적합하다. 셋째, 발달에 대한 관점과 관련하여 기존 시각은 관계 자체 보다는 성취를 강조하고 독립을 강조하는 남성적 세계를 더 잘 반영하였다. 그러나 관계론적 시각에서는 관계의 성숙을 발달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적 세계를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성적체감 형성에 대한 관점과 관련하여 기존 시각에서는, 외디프스기의 남근선망에 의하여 성적체감이 형성된다고 보았으나 관계론적 시각에서는 외디프스기 훨씬 이전 시기에 인지 능력 등의 발달로 인하여 성적체감이 형성된다고 본다. 또 여아를 남아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서 보기 보다는, 남아와

12) Ibid., p. 160.

13) Ruthellen Josselson(1983). *Finding Herself* (Jossey-Bass Inc., Publishers), p. 185.

14) Janet L. Surrey(1991). The "Self-in-Relation": A Theory of Women's Development, In *Women's Growth in Connection*, eds. by Judith V. Jordan, Alexandra G. Kaplan, Jean Baker Miller, Irene P. Stiver Janet L. Surrey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15) Judith V. Jordan(1991). Empathy and Self Boundaries, In *Women's Growth in Connection*, eds. by Judith V. Jordan, Alexandra G. Kaplan, Jean Baker Miller, Irene P. Stiver Janet L. Surrey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16) Judith V. Jordan(1991). The Meaning of Mutuality, In *Women's Growth in Connection*, eds. by Judith V. Jordan, Alexandra G. Kaplan, Jean Baker Miller, Irene P. Stiver Janet L. Surrey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존재로 본다. 따라서 이상의 4 가지 점에서 Erikson 발달 이론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III. Erikson 발달 이론 분석

본 글에서의 분석은 정체감 형성 단계로 제한한다.

#### 1. 원초적 자아

본 분석은 청소년기에 제한되므로 원초적 자아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된다.

#### 2. 발달 과제

정체감 형성 단계에 와서 Erikson은 이제 기술의 세계와,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을 가르치고 공유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아동기는 막이 내리고<sup>17)</sup> 청년기가 시작된다고 하였다. Erikson에 의하면 이 시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결정 유예기간(moratorium)이다. 이제 확실한 성인으로서의 과제에 당면해서 일차적으로 자신들이 '타인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자신이 '자신들에게서 느끼는 점들'과 비교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전 시기에 길러둔 '역할과 기술들'을 당시의 '직업적 전형'과 연결시키는 방법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sup>18)</sup>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젊은이들을 가장 혼란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업적 정체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sup>19)</sup>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점들을 통해서 볼 때 발달 과제와 관련하여 Erikson은 이 시기의 주요 과제를 정체감 형성으로 보면서, 정체감을 주로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들을 공고히 하는 것과 관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기 이전 단계들에 대한 연구들을 통하여 여성은 한결같이 남성에 비해 관계적 속성이 강하게 발달되어 왔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청소년기까지 그러한 관계적 속성들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으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Erikson은 정체감을 직업, 역할과 기술들을 중심으로 언급함으로써 여성의 정체감은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물론 Erikson이 여성의 정체감의 특성을 친밀감과 연결시켜 언급하였으나 그것은 친밀감 형성 단계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Lidz도 이 시기는 확실한 생활 방식을 찾기 위해서 그들 삶과 관계가 있는 것을 알려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해주는 준거점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이 때 직업에 대한 결정을 통해서 방향이 주어질 것이며 직업에 대한 선택을 한

17) Erik H. Erikson(1980), p. 94. 사실 Erikson은 그의 이전 저서인 *Childhood and Society*에서는 '기술과 도구의 세계와의 좋은 초기 관계를 형성함에 따라, 그리고 사춘기의 도래로 아동기 자체는 막을 내린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후에 와서야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형성을 첨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8) Erik H. Erikson(1963), p. 261.

19) Erik H. Erikson(1980), p. 97.

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된다<sup>20)</sup> -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도록 도와준다 - 고 하였다. 그러나 Lidz는 오늘날 여성의 정체감은 혼란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지금의 역사적 상황이 여성에게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함으로써 여성들은 자신의 특별한 재능도 성취하고 싶고, 전통적인 여성으로서의 정체감도 원하게 함으로써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sup>21)</sup>는 것이다.

Josselson은 후기 청소년기의 친화적 측면을 나타내는 가장 상징적인 단어로서 “정착(anchoring)”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정착 과정이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데, 정체감 성취를 한 많은 여성들 대부분이 남편과 자녀를 중심으로 정착하는 반면 직업을 중심으로 정착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수’<sup>22)</sup>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설명을 통해서 볼 때, 여성들의 정체감은 최근에 직업과 관계 두 가지가 동시에 요구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결국 Erikson은 남녀가 그들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남성의 특성을 중심으로 정체감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대상 의미

정체감 단계에 와서 Josselson은 Erikson의 정체감은 Blos의 분리-개별화와 많이 유사하다<sup>23)</sup>고 하였다. 따라서 일차적 양육자로서의 대상은 극복해야할 존재로서 설명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Chodorow의 초기 아동기의 어머니-딸, 어머니-아들 관계를 통한 남녀의 차이는 Lever<sup>24)</sup>의 연구에 의하여 아동기 중기 놀이 활동에서의 양성간의 차이로 연장된다. 이 두 연구의 분석으로 남아와 여아가 서로 다른 인간 관계적 태도와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사춘기에 이른다는 것<sup>25)</sup>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여아는 관계적 속성이 강하게 되어 사춘기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같이 청소년기의 과제를 분리-개별화로 볼 경우, 여자 청소년은 어머니와의 관계로 인하여 이 시기에 가장 복잡해지고 문제점이 많다고 볼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이 발달 상 더 불리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벗어나야 할 존재라기보다 오히려 청장년이 됨에 따라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점점 더 이해와 수용적인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Erikson의 정체감 단계에서 대상의 의미는 지금까지 일차적 양육자였던 대상으로부터 떠나 성인으로서의 독자적 삶을 위하여 직업과 이념적 지향이라는 또 다른 대상과 연결되는데, 남성의 새로운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라는 점이 여성의 경우와는 다르다. 남성의 이러한 특성은 청년기 이후 성인기를 지나 은퇴 직전까지 지속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Gilligan와Chodorow에 의하면 여성의 정체감은 관계

20) Theodore Lidz(1976), p. 359.

21) Ibid., pp. 362-363.

22) Josselson(1983), pp. 174-175.

23) Ruthellen Josselson(1983), p. 16.

24) Janet Lever(1978). Sex Differences in Complexities of Children's Play and Ga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3(August) : Janet Lever(1976). Sex Differences in the Games Children Play, *Social Problem*, Vol. 23.

25) Carol Gilligan(1982), p. 11.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Josselson도 여성에게는 남편과 자녀들이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Erikson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Erikson은 여성에게 있어서의 대상은 남성의 대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면서도, 전체 이론에는 그의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Erikson의 이론으로 여성의 정체감을 나타내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 4. 성 정체감

정체감 형성 단계에서 성 정체감과 관련하여 Erikson은 'Womanhood and the Inner Space'에서 여성에게는 오히려 정체감 보다 친밀감이 선행된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여성은 그녀가 자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선택할 때까지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규정할 수 없다<sup>26)</sup>고 함으로써, 사회적 기술이나 직업을 중심으로 한 남성의 정체감과 다르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는 여성이 남성보다 수동적이라거나 피학적이라는 것을 부인<sup>27)</sup>한다. 왜냐하면 여성은 여성 자신의 내적 신체 과정에 맞는 방식으로 적극적이며, 친밀감과 농축된 감정 등의 자질이 있고 모성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여성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될 사람이 대상으로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체감이 형성된다는 것을 Erikson은 이미 여성 자신의 성향에 따라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소극적으로 보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통하여 볼 때, Erikson이 적어도 여성을 남성적 기준에 적용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Erikson 이론은 여성의 특성을 인정하고는 있으면서도 주로 생물학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분리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iller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문화가 소녀들로 하여금 소년들에게 요구되어온 것과 같은 정체감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녀들의 능력들을 관계 속의 존재라는 맥락 안에서 충분히 사용하도록 하는 반면 남이는 독립된 정체감과 자기자신을 발달시키려는 노력에 훨씬 더 몰두하도록 요구한다. 그런데 청소년기에는 여아에 대한 요구가 더 강력해짐으로써, 여성은 점점 복잡하게 점점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발달시킴을 뜻하는 "관계 속의 존재(being -in-relation)"라는 정체감을 추구하게 된다<sup>28)</sup>고 하여 여성의 정체감이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Miller의 주장처럼 청소년기부터는 남녀의 성 정체감이 확연히 구분되기 시작하는데, Erikson에게 있어서 정체감은 남성의 성 정체감과 연결된다. 물론 부분적으로 Erikson의 설명 속에서 여성의 관계적 속성을 여성의 특성으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발달 이론에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Erikson은 주로 남성적 속성을 중심으로 발달 단계들에 대한 설명들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성의 특성을 언급하는 경우에도 생물학적 요인을 주로 언급한다는 점에서 분리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보겠다. 따라서 여성의 '관계 속의 존재'라는 인식이 보완될 때, 그의 이론이 남성과 여성

26) Erik H. Erikson(1968), p. 283.

27) Erik H. Erikson(1968), p. 284.

28) Miller(1991), p. 21.

모두의 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이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V. 관계론적 보완 모델 제시

성인으로 가는 과도기로서의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가 대상 교체의 시기에 속한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대상 교체 시기 중 청소년기에 제한한다. 청소년기는 성역할 수행을 통하여 성인으로서의 준비를 하게 되는 시기로서, 이 때부터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Erikson의 정체감, 친밀감 형성기와 생성감 전기가 여기에 속한다. 대상교체란 초기의 일차적 양육자로서의 대상과의 절대적 관계가 점차 완화되면서, 새로운 대상 즉 배우자나 자신의 재능, 일로 일차적 관심이 옮겨지는 것을 뜻한다. 이 시기에 일반적으로 여성은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남성은 주로 일을 중심으로 경험이 형성된다.

앞에서 밝혀졌듯이 청소년기에 여성은 어머니와의 관계로 인하여 독립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어머니와의 관계 경험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관계 특성이 강해짐에 따라 정체감 형성에 있어서도 남성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Erikson은 여성의 정체감은 친밀감을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함으로써 여성은 배우자의 선택에 따라 정체감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Josselson도 앞에서, 여성의 많은 경험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이 정체감 형성에 중요하며, 정체감을 성취한 여성들 대부분이 남편과 자녀를 중심으로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결국 여성들의 정체감은 주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 Miller도 남자는 자기 자신을 발달시키려는 노력에 몰두하도록 요구되는 반면, 여성에게는 자신의 능력들을 “관계 속의 존재”로서의 정체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사용하도록 요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Erikson, Josselson, Miller 등의 주장을 통해서 여성의 정체감은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동시에 남성과는 달리 여성은 친밀감과 일에 헌신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는 Maggie와 Lidz의 앞에서의 언급에서도 나타나듯이, 오늘날 여성들에게 직업, 재능을 중심으로 한 정체감과,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체감 두 가지가 모두 은연중 요구되는 경향이 점점 강해져감에 따라 여성들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은 여성들의 정체감이 대부분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여성의 발달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상호감정 이입, 수용, 이해 능력 등이 발달 척도로써 포함되어야 한다.